

기억하여
록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25주년 기록집
하 다 1998~2023

내 마음 흔들려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환대 받는 곳



함께 핀 나눔을 축하하며

축하의 글 _ 이경호 주교, 박경조 주교

훌씨가 톱, 날아왔은 자리

세류동 25년 살이

어느새 피어난 나눔의 훌씨들

25년간의 나눔 여정

25년 활동 이야기

훨훨 훌씨 되어 우리에게

우리의 고민과 바람

내일의 훌씨들

별책부록

투명한 거미줄에 걸린 사람들

축하의 훌씨들

수원나눔교회 훌씨



<사진 : 2004.8.23>

수원나눔의집은 1998년 수원교회 내에서 결식어린이에 대한 무료급식 및 공부방 운영이 모태가 되어 1999년 6월에 교동에 최초로 터를 잡아 개원(원장: 임영인 신부)했으며, 2003년 11월에 세류동의 현 장소로 이전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원나눔의집은 수도권에서 다섯 번째로 생겨났습니다. 세류동에 터를 잡고 도움이 없이는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저소득 가정과 아동,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가정결연사업,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신나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키다리꿈지역아동센터, 쓱쓱꾸러기 작은도서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볼마크 + 로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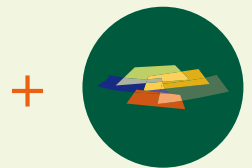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달동네의 '달'을 의미



민들레 훌씨



마을, 달동네

“우리의 활동은 거미가 만들어 놓은 투명한 실처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상계동 지역을 오가며 만들어 놓은 그물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맑고 투명한 줄이지만 그럼에도 가슴 시린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미처럼 달려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묘한 진동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울리는 떨림이 있기에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수원나눔의집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경호 주교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의장주교)

수원나눔의집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의 친구로 좋은 길벗이 되어준
수원나눔의집 가족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준 선한 일들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모든 여정에 함께하신
신부님들 실무자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빕니다.

지난 25년의 수고와 애씀을 축복합니다



박경조 주교
(제4대 서울교구장 주교)

수원나눔의집이 걸어왔던 25년의 수고와 애씀을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 성공회의 역사에서 '나눔의집'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곳이 되었을까요? 수원지역에서 '수원나눔의집'
이 없었다면 수원 성공회는 이웃의 고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들
만의 교회'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깨워 일으키셨습니다. 말씀과 성사가 살아 움직이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과 더불어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굴곡진 역사 속에서도 참된 길을 찾아 25년 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은 수많은 발길을 기억하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25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
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끌어 오신 정일용 신부님과 실무자들, 그리고
봉사자들, 작은 힘들이 모여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각박한 세상 한가운데서 작은 사랑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날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

홀씨가 뚝, 날아왔은 자리

세류동 25년 살이

1998 ——— 2023

세류동 25년 살이



정일용 신부
(수원나눔의집 원장사제)

수원나눔의집 25년의 초창기 기억

오래전의 기억을 찾기 위해 자료를 살피고 사람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수고스러운 작업입니다. 그것은 마치 묵었던 옛 앨범을 열어 사진 한장 한장에 각주를 달아 기록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진은 빛이 바래져 있고, 뜯기기도 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온기'는 디지털 사진보다 훨씬 생생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누군가의 회상을 통해 잊고 있었던 것들이 오랜 기억 속에서 살아나와 우리의 손을 잡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억들, 소중한 사람들, 그날에 나누었던 대화들까지 함께 만납니다.

기억이란 이렇게 추억할 만한 단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의미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일부분이 되어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나눔의집 활동도 이런 것이 아닐까 조심히 물어봅니다. 이제는 잊었다고 생각하는 선한 신념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생의 희망'들을 다시금 꿈꾸게 하는 일.

휴대폰카메라처럼 효율적이고 대량생산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포착해서 찍는 장면을 만나는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지요. 그런 일들이 수원나눔의집을 통해 좀 더 많이 일어나길 기도해봅니다.

그래서 기록집이란 이름보다는 '기억집'이면 좋겠습니다! 25년 전 초창기 나눔의집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느끼는 것은, 그분들의 기억이 조금은 엇갈리기도 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억에 묻어있는 정겨운 의미가 모든 것을 이어줍니다. 그때는 서로 몰랐지만 이제 2023년의 눈으로 보니 그 당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길 위에서 만나고 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기록집이 만들어진 후, 우리는 또다시 수원나눔의집 안에서 새로운 기억을 새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곳에서 맺고 있는 인연

스물다섯 살, 수원나눔의집

들,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 먼 훗날에는 옛 앨범을 넘기듯 회상하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순간을 좀 더 의미롭게 살고, 기억하며 힘껏 사랑해야겠습니다.

성공회 나눔의집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난한 마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늘 언제나 더 낮은 곳을 향해 자신을 흘려보내는 하느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른바 달동네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 정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그림자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눔의집들은 각자의 현장(현재 서울, 경기도의 9개 지역)에서 꽃을 피워냈습니다.

수원나눔의집은 1997년 IMF로 인해 삶이 무너진 이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눔의집의 형성과는 조금 다르게 수원나눔의집은 성공회 수원교회의 사회적 관심이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은 후 한동안 벼랑 끝으로 추락했습니다. 양극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이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났지요. 그에 따라 많은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고, 갑자기 직업을 잃은 많은 가정이 이혼과 가난 등으로 인해 삶이 붕괴되었습니다. 암울한 그림자를 남겼지요. 이 문제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교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사회적 재난과 이웃들의 고통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지금의 힘든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해요. 대부분의 교회는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라며 세상의 아픔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원교회는 자발적으로 1998년 12월 수원지역의 결식아동 무료급식 및 공부방 운영을 시작으로 수원지역에 나눔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25년 전 성공회 수원교회에서 일어났던 우여곡절 많았지만, 감동 가득한 나눔 이야기를 풀어 볼까 합니다.

① 수원교회가 뿌린 씨앗

(1998년부터)

1998년, 1999년 수원교회의 주보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교회의 성직자와 신도들이 얼마나 나눔의집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듯 정성스레 보듬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박경조 주교(당시 수원교회 관할사제)

“제가 1989년 수원교회에 부임 했을 때 깜짝 놀랄만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수원교회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성교회 교회가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충격이었고 마치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목회의 지향점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고계원(수원교회)

“1998년도인가? 박경조 신부님께서 수원지역에서 나눔의집을 시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서울교구 나눔의집 위원인 제가 실무자로서 나서게 되었는데, 이명호 교우와 함께 기획하고 어떤 때는 퇴근 후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만들어 교회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원교회 교우들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눔의집은 성공회를 다니는 저에게는 자랑과 긍지였습니다. 그런 나눔의집의 축성(1999년 11월 9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이명호(수원교회)

“수원나눔의집 성립과정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IMF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목숨을 끊었으며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시점에 수원교회는 마땅히 교회가 사회적 아픔에 함께해야 할 것을 결의했었어요. 수원시청에서 대형교회에 IMF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요청했지만, 대답은 없었고 수원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사회복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교회가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들이 있었고 그 불신을 이해시키는 과정 끝에 드디어 우리는 수원나눔의집 축복식(1999년 가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든 과정은 당시 수원교회의 애정과 서울교구와 남부교무구의 후원, 그리고 수많은 교우의 기도와 봉사, 후원의 결실이었습니다.”

② 아이들에게 핀 민들레 홀씨

(1998년, 1999년. 그리고 현재)

수원교회로부터 시작한 나눔 활동은 소외된 아이들의 돌봄과 노숙자 사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숙자 사업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은 훗날 지금의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토대가 되었고, 지역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돌봄은 2023년 현재까지 ‘신나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김병내 신부

“IMF 이후 깨어진 가정이 많았습니다. 부부가 맞벌이해야 할 상황에서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고, 수원교회에서도 세상의 아픔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살폈습니다. 매향동과 세류동 근처의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파악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아이들은 동사무소를 다니며 명단을 채워나갔고 팔달구청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픔과 외로움에 물려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원교회에서의 모금 운동과 지역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적은 공간을 마련했고, 신나는 집(현재 신나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이 문을 열게 되었지요.”

고명선(나눔의집 활동가)

“공부방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같아요. 나눔의집은 누구든지 찾아

올 수 있는 곳이었고,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엄청 넓고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성애(수원교회)

“제가 99년도에 세류동에서 음악학원을 하고 있었을 때, 학원 옆 건물로 수원 나눔의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제가 수원 ‘음악이 있는 마을’이라는 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었을 때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문광부와 ‘수원나눔의집’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당시 세류1동 어린이공원에서 합창단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함께 합창을 성황리에 마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또 기회가 생긴다면 30주년 기념으로 나눔의집 식구들과 함께 연합합창을 해보고 싶네요!”



③ 세류동에 자리 내린 민들레 홀씨 (2000년~2003년)

이제야 배운 세

임영인 신부(수원나눔의집 첫 발령사제)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기억은 잊을 수 없지요. 저에게 있어서 수원나눔의집은 첫사랑이었습니다. 수원나눔의집은 서울교구의 다른 나눔의집과는 달리 수원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며, 후원해주신 수원교회의 모든 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원교회의 교우분들도 저에게는 목회 활동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의 세류동 건물을 짓게 된 과정입니다. 나눔의집을 이전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두 달가량 나눔의집을 지을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오로지 믿음만을 가지고 예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었습니다. 수원나눔의집은 무수한 이들의 수고와 기도, 나눔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은 하느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고백합니다.”

이명호(수원교회)

“하느님께서 제가 가진 여러 자원을 통해 나눔의집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현재의 세류동 부지를 마련하는 일부터 자활센터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제가 수원나눔의집 건축위원장 역할을



했지요. 수원나눔의집이 홀로서기를 준비할 무렵에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 세류동 부지에 나눔의집 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거의 매일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임영인 신부님과 마시던 모닝커피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종장(수원나눔교회)

“제가 처음 수원에 와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원장이셨던 임영인 신부님께서 나눔의집에 공간이 있으니 사용하라고 하셔서 한 1년 동안 나눔의집 2층에서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때는 여기 동네가 좀 시끄러웠어요. 누군가의 취한 고함,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남편의 주먹을 피해 나눔의집으로 도망쳐온 여인,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등. 당시 나눔의집은 이런 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었고 그들의 아픔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눔의집에서 만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④ 퍼져가는 민들레 홀씨, 나눔의집의 확장 (1999년~2006년)

이제야 배운 세

이한오 신부(나눔의집 첫 발령전도사)

“수원역 앞에 경기서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어졌겠지요? 거기서 당시 수원나눔의집 원장이었던 임영인 신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나눔의집이 하고자 하는 일들, 예컨대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 지역주민을 위한 노래자랑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의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공부방의 어린이들이 지금은 어른이 되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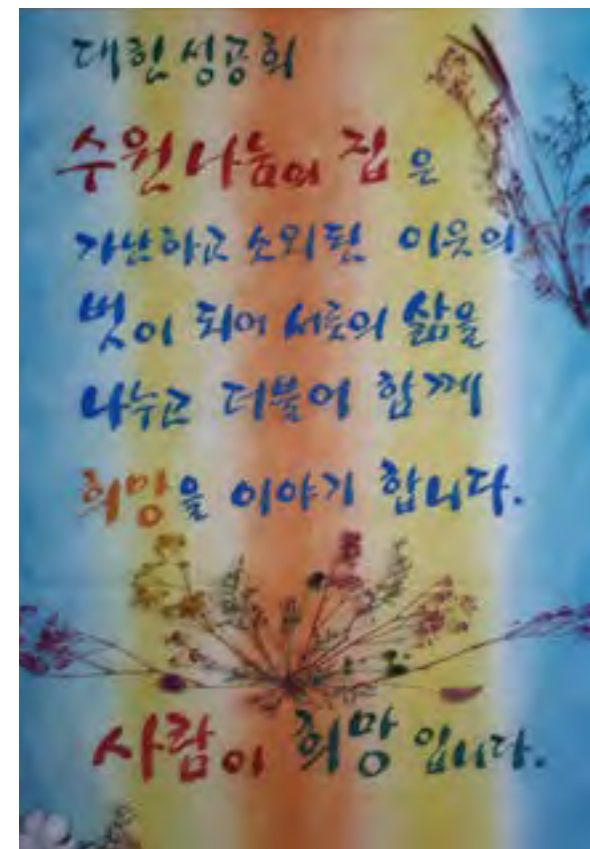
이형운(나눔의집 활동가)

“지인의 추천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였는데 단순히 자활센터만의 활동으로 가난한 이웃들이 갑갑한 그들의 현실을 벗어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눔의집 정신을 구현하면 가난한 공동체들도 미래가 엮여질 것 같았습니다. 큰 집 성공회 수원교회와 작은 집인 성공회 동수원교회(현 오산세마대교회)의 도움이 컸는데요. 마치 가족처럼 어떻게 하면 나눔의집을 도울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시는 교우님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역자활센터 사업도 정말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자활사업, 알코올 치료사업, 재가사업과 요양사업과 노숙인사업 등을 진행했었는데 함께 일하는 실무자들이 십여 명이나

돼서 활동가 교육을 하면 신발 둘 데가 부족하기도 했었습니다.”

임희봉(수원나눔교회)

“수원나눔의집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20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성공회 신자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저는 나눔이라는 가치에 대해 몰랐라 있었고 이 몰라름을 나눔의집이 채워주었습니다. IMF로 한국 사회가 휘청거렸을 때 수원나눔의집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운영한 밥집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눔의집 시설 관련 공사가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강홍배(나눔의집 활동가)

“그 당시 나눔의집에는 공부방, 독거노인 반찬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저는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자리를 고민하기 위해 공동 작업장 및 산모도우미 교육 등을 진행하며 일자리를 마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고 어울리는 관계를 맺어가며 그동안 내가 너무 뜬구름 잡는 방식의 운동을 해 왔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운동의 출발은 바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성장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나눔의집은 오늘의 제가 있도록 한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위력이
너무 크고 견고해서 그냥 사는 그 자체가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린 손이 지금 눈앞의 작은 이들을 만지고
하나둘 작은 용기를 나눌 때, 이 차가운 세상은
반드시 빗장 너머의 따뜻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출 것입니다.



⑤ 신앙으로 피어난 홀씨

(2000년~현재)

모든 나눔의집에는 신앙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앙공동체는 나눔의집이 단순한 사업이나 활동 중심의 공간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활동을 하느님의 빛 가운데 성찰하고 보다 선한 길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형운(나눔의집 활동가)

“초기에 이종장 교우님(호세아) 가족들만 참여했던 신앙공동체가 성직자 가정과 평신도들이 늘어나면서 매주 일요일은 웃음 가득했었습니다.

동수원교회 신자셨지만, 꾸준히 나눔의집 신앙공동체를 위해 애쓰셨던 임희봉(크리스핀) 교우님의 기도는 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지요. 또 신앙공동체 대부분 자녀가 어려서 일요일 온종일 공부방 공간이 와글와글했답니다. 우리집과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의 아이들은 그때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배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십대 중반의 청년이 된 그 아이들이 그때를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삶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해 준 그때 신앙공동체 모두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나눔의집 활동가)

“수원에서 함께 일하기 전, 수원나눔의집 신앙공동체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매교동 작은집에 몇 명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데 참 따뜻했었고 함께 밥을 지어 예찬을 나눌 때도, 그리고 공부방에 다니는 코흘리개 꼬마가 개집에 들락날락하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엽고 나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종장(수원나눔교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픈 사연의 사람들이 나눔의집 안에서 희망과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기도로 헌신하는 나눔의집 사람들 모습이 어두운 곳에서 쓰러져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심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인다면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도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임희봉(수원나눔교회)

“나눔의집이 가지고 있는 선교 정신과 저의 개인적 소명이 잘 맞았습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단순한 시혜를 넘어 나를 살리고 제 삶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내 작은 기여를 통해 주위가 바뀌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의 삶도 충만해졌습니다.”

⑥ 그들이 전하는 응원 메시지

(2000년~2006년)

박경조 주교

“수원나눔의집!

세상에 무엇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경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일으키는 전쟁과 갑질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고명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청 빠른 속도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혐오와 차별이 가득해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수원나눔의집이 지금처럼 곳곳하게 서로를 지켜주고 오래오래 함께 걸어가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강홍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힘을 모으면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워가도록 돕고 촉진하는 역할이 바로 나눔의집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5년의 역사는 공부방 아이들, 지역의 어르신, 나눔의집 활동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써내려 온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방향을 잃지 않고 50년, 100년을 그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나눔의집이라 생각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계원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한 구조와 노령화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많은 사람에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신부님들께 힘주시고

많은 봉사자와 후원자를 보내 주시기를 기도하며,
수원나눔의집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종만

“세상의 변화가 이젠 10년이 아니라 훨씬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건물이 높아지고 화려한 공간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 사회의 그늘, 그리고
초라함에 지쳐가는 사람도 늘어갑니다. **지금껏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주옥 수원나눔의집이 지친 삶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인호

“나눔의집은 여전히 그늘진 사각지대를 비추는 따뜻한 한 줄기 햇빛과
같은 곳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더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면서 힘 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강관석 신부

“세상의 모든 사물은 있는 곳에서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나눔의집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나눔의집을 기억하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의집 에피소드 1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글 강홍배

수원나눔의집이 공부방을 운영할 때였습니다.
저는 공부방 담당은 아니었지만, 낮에 지역자활센터 일이 끝나면
나눔의집으로 가서 대학생자원봉사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부방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 안 들어와요. 제발 제 아이를 찾아주세요.”

어떤 어머니의 절박한 전화였습니다.
공부방 선생님이 수소문한 끝에 밝혀지는 진실….

바로 그 아이는 저였습니다.

제가 퇴근 후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집이 수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아서 걱정되신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공부방 담당 선생님이었는데
처음 전화를 받을 때는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가
그런 것인 줄 알고 당황했다고 해요.

많이 놀라셨죠?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집 부지 마련으로 정신없이 땅을 보러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눔의집 공간으로 딱 알맞은 50평 정도의 빈 땅을
발견하였습니다. 세류동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알 턱이 없던 저는
당시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수원교회 이명호 교우님을 찾았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나요?

중국집에서 식사하며 교우님께 “그 땅이 누구의 땅인지,
팔 의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던 이명호 교우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말없이 제 얼굴을 뚫히 쳐다보시더군요.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그 땅 주인이 바로 접니다.”

당시 이명호 교우님은 ‘설마 신부님이 미리 조사하고 나를 떠보는 건
아닐까? 그럴 리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땅이 설마 지금 내 눈앞에서 짬뽕을 드시는 그분 소유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때 이명호 교우님은 이 일을 ‘하느님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자신의 땅을 무척 싼 가격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업자를 소개해주시며,
자신의 비용으로 나눔의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를 응원해주셨지요.



예전에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했던 사건들도
먼 훗날 돌아보면 피식 웃을 수 있는 정겨운 추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는 무수한 불편함이 어찌면 우리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하느님의 선물’은 아니었을까요?



스물다섯, 수원나눔의집 기억집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 안도현

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래전의 기억을 찾아 글로 남기는 일은
참으로 지난한 일입니다. 수원나눔의집 초창기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해야 했던
첫 작업은 그날의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낯선 이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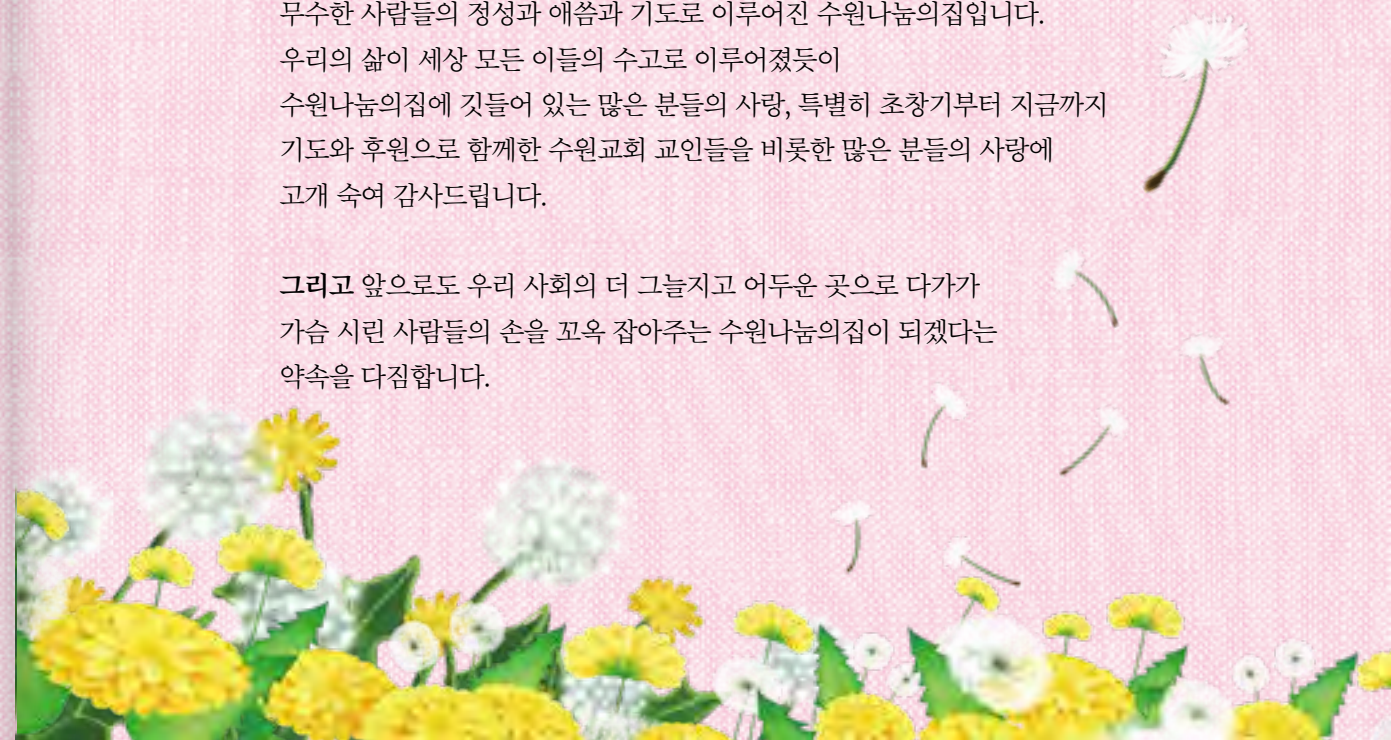
기록을 담당한 제게는 부담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용기 내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순간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감사함

저는 지난 5년간 수원나눔의집을 액자에 담긴 한 폭의 그림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미 탄탄하게 지어진 건물을 대하듯, 있는 그 자체가
당연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자기가 받아왔던
깊은 사랑을 당연하게 기억 못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정성과 애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수원나눔의집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모든 이들의 수고로 이루어졌듯이
수원나눔의집에 깃들어 있는 많은 분들의 사랑, 특별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한 수원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더 그늘지고 어두운 곳으로 다가가
가슴 시린 사람들의 손을 꼬옥 잡아주는 수원나눔의집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짐합니다.



2

어느새
피어난



나눔의 홀씨들

25년간의 나눔 여정
25년 활동 이야기

1998 ——— 2023

25년간 수원나눔의집이 걸어온 여정

우리는 나눔의 흙씨들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여정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1998

- 결식아동 무료급식 및 공부방 운영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1999

- 수원나눔의집 축성식(1999.11. 9.)
- 무의탁 독거노인 미용봉사 시작 및 주민교육 실시
- 먹거리 나누기 운동
- 무의탁 독거노인 결연 사업

2000

-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수원자활 후견기관 위탁
- 간병인 공공근로 위탁운영 실시
- 산후조리 교육실 및 마을주민 공동작업장 설치

2001

- 「땅콩들의 밥집」 어린이 무료급식센터 운영

2002

- 공원관리사업단, 복지간병인 사업단 운영

2004

- 제 1회 세류동 주민노래한마당 개최
- 사랑의 119 봉사단(평동지역 독거노인지원) 운영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잡병재활용사업」 운영
- 무료치과 진료시작

2005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시설 지정
- 다시서기상담센터 개소(노숙인활동)
- 제 2회 세류동 주민노래한마당 개최
- 신나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신고
- 나눔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개소

2006

- 나눔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수원재가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

2007

- 수원 방문간호센터 개소

2008

-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이관(수원방문간호센터, 수원재가복지센터)

2009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

201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우수기관 선정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

2011

- 신나는공부방 희망네트워크, 삼성꿈장학재단 협약
-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를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로 명칭변경 및 부설 '꿈터'개소

2012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명칭변경 및 시설협의회로 이관
- 나눔영화제 개최
- 2012년 수원어린이·청소년 한마당

2013

- 수원재가복지센터를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명칭 변경
- 키다리꿈지역아동센터 개소
- 쓱쓱꾸러기 작은도서관 개소

2014

- 쓱쓱꾸러기 작은도서관 개관식
- 도서관에서 배우는 인생학교 인문학 강좌 개최
- 글로벌문화체험단 박헌주미래재단 중국상해 방문

2015

- 신나는공부방 경기도생활체육회 풋살대회 결선 진출

2016

- 수원나눔의집 '후원의 밥집' 행사
- 키다리꿈 월세마련을 위한 카카오키 '갈이가치' 기부 행사
- 신나는공부방 환경개선

2017

- 키다리꿈지역아동센터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2019

- 키다리꿈 정원 증원
- 2019년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2020

- 노인맞춤돌봄사업 선정 및 개소식
- 「한 여름날, 꿈 전시회」 신나는공부방 그림 전시회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 주관

2021

-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업무협약
- 세월호 7주기 피켓팅
- 제 30회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 신나는공부방 환경개선

2022

- 공동모금회 차량전달식
- 수원 세 모녀 시민추모제
- 이태원참사 시민추모제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
- 행복나눔의밤(키다리꿈/신나는공부방 연합행사)
- 2022년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2023

-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및 청마종합건설 업무협약
- 2023년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
- 수원 세 모녀 1주기 추모성찬례(수원교회)
- 다음소희 공동체 관람
- 어르신 봄나들이
- 수원나눔의집 25주년 기념식 및 후원발집

① 신앙공동체 수원나눔교회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교회로

수원나눔교회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 수원나눔의집 신앙공동체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베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수원나눔의집에서는 교회라는 표현보다 신앙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이는 현재 기성교회의 문제들, 이를 테면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사회정의에 무심하며 성장제일주의를 숭상하고 있는 드러난 교회에 대한 거부감에서 오는 표현이지요.

수원나눔의집 신앙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드러내는 새로운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요한 3:30)



② 지역연대 활동

수원나눔의집과 연대하는 이웃들

수원나눔의집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씨름하는 연대단체들을 소개합니다.



지역연대 활동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1986년 상계동 나눔의집을 시작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의 9개 나눔의집이 협의회를 이루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나눔의집협의회는 월 1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눔의집 활동과 운영을 함께 논의하며, 외부적으로 나눔의집을 대표하는 활동을 담당합니다. 교육부문에 는 매년 진행되는 신입 실무자 교육과 3년

이상 된 실무자가 참여하는 징검다리 교육, 중견 실무자 해외연수(7년 이상), 분기별 실무자 피정을 통하여 각 나눔의집 실무자의 성장을 돕고 있지요. 년 단위로는 모든 나눔의집이 참여하는 정책수련회와 가을 대동제, 그리고 '고난받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성탄절, 고난주일)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눔의집협의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벗이 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더불어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시민협(수원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시민협은 2011년도에 결성되어 현재 26곳의 회원단체와 5개의 참관단체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연대를 통해 모아진 힘으로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 지기를 지향합니다.

수원나눔의집도 시민협을 통해 지역의 큰 이슈나 공동행동에 함께 결합하였고, 세월호 피켓팅, 세 모녀 추모제,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아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원 세 모녀 및 이태원 참사의 경우 수원나눔의집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결합하였습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친근한 벗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과 더불어 복지공동체를 실현 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주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공부하며 풀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복지권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담론회, 장애인인권 공동체 상영, 복지정책세미나, 정책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나눔의집 원장이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로 있으며 4명의 실무자 선생님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대활동 :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수원이주민센터 :
미안마 군부는 학살을 멈춰라!
고문과 사형집행 규탄 기자회견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
"아편따바 미안마!"



수요문화제

지역연대 활동

수원평화나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 故안점순 할머니의 용기와 그 활동에 함께하는 시민들의 응원으로 2014년 3월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 '소녀상'이 건립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수원평화나비'가 창립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정오(12시)에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를 진행 중인데요. 2023년 10월 현재까지 78번의 문화제를 지켜왔습니다. 수원나눔의집은 2019년부터 수요문화제 주관단체로 함께하고 있으며 총 3번의 수요문화제를 주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이주민센터는 2000년에 설립되어 이주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서툰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 이주민들을 대하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기 위한 인식개선활동, 이주민 모국에서 일어난 전쟁이나 내전을 반대하는 집회 활동 등이 수원이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현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작은 문화제를 매주 일요일마다 수원역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나눔의집은 수원이주민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참여중입니다.

수원시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은 1992년 수원YMCA에서 시작되어 이후 시민단체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어린이·청소년 축제입니다. 의례적인 행사성 이벤트가 아니라 수원에서 소외된 지역을 거점으로 직접 찾아가서 어린이·청소년들을 만난다는 건강함이 살아있습니다. 그 수고를 인정받아 지금은 수원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요.

매년 5월 5일 각 거점에서 진행되는 어린이·청소년 한마당은 올해로 32회를 맞이했고 그동안 쌓인 경험을 통해 수원이 자랑할 만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월 5일이면 저희 수원나눔의집도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어린이·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을 환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의 수고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 성공회 밤기도 예식문 중에



1992년 수원 YMCA에서 시작된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음악이 있는 마을
작은 음악회



③ 어르신들을 만난 흙씨들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_재가노인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과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맞춤영양지원 2,3 사회참여
4 표창 5 정서지원
6 이미용 서비스 7 노인의날
8 육한기지원(김장김치)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부 이미지에 스티커 처리를 함



1 일상생활지원 2 주거환경개선 3 사랑의집고치기 4 명절서비스 5 육한기지원 6 영양관리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부 이미지에 스티커 처리를 함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흑서기/흑한기 지원

더위야 물러가라! 따뜻한 겨울을 부탁해!
시원한 바람이 여름 더위를 식혀주고
맛있는 김장김치가 겨울 반찬으로 그리고
따뜻한 이불이 어르신의 겨울을 포근히
감싸줍니다.

주거환경개선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후원품

마음 모아 주신 후원 물품을 전해드려요.

영양관리

건강한 노후, 건강 밥상으로!

명절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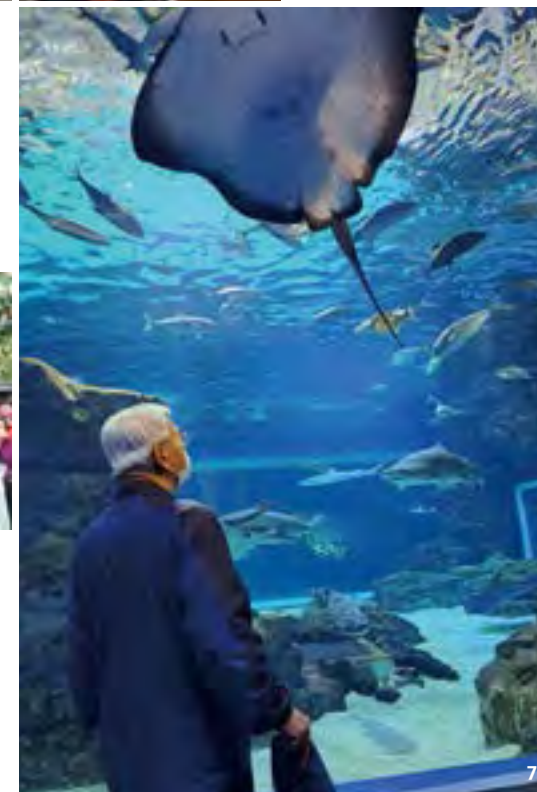
설, 추석 나눔행사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독거어르신들의 명절 외로움을
안아드립니다.



1 꽃북 2 건강한 한끼 밥상 3 테라리움
4 포천나들이 5 라이더봉사자와 함께
6 화성행궁 7 민속촌나들이



1 강릉나들이
2 맨손제조
3 오르다



4,5 민속촌나들이
6 화성어차
7 아쿠아리움

노인의날

어르신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낫길 바랍니다.

이미용서비스

10년 젊어지기 프로젝트 : 염색과 펌으로 10년 젊어지기 성공!

일상생활지원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화생활

일상탈출! 효 + 행복나들이 : “여기 오려고 어제 미용실 다녀왔어.” 용기 내 주신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힐링day : “극장은 이날 평생

참이여~~” 행복한 설렘이 느껴집니다.

정서지원

그림으로 마음읽기, 마음 위로하기 : 작가가 되신 어르신들의 작품에는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여태까지 잘 자라고 있어~ 나눔의집에 감사해~”

테라리움, 콩나물키우기, 화분만들기로 어르신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응원합니다.

사회참여

또래 친구들과 재미난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

평생학습 한글문해교육 :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저학력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 한글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 문화생활 2 노인의날
3 정서지원 4 욕창방지
5 후원품 6 정서지원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부 이미지에 스티커 처리를 함

여가활동 집단프로그램 : 수원특례시와 수원문화재단 지원 인문학 창작교실 “그림책으로 맞이하는 봄” 독거노인 여가활동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문화활동 뮤지컬관람 : 평소 외부활동이 없는 독거어르신들에게 뮤지컬관람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맞춤형영양지원

당뇨와 혈압으로 인해 영양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개선식을 지원합니다.

표창

오랜 시간 나눔의집에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표창수여 : 우수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커민스필터」(수원나눔의집 후원사)

일상생활지원

밀반찬 지원 : 식사 관리가 힘들어 건강상태와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독거 어르신 60명을 선정하여 매달 밀반찬 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김장김치 지원 : 겨울철 주된 먹거리 김장 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전달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안전 안부를 확인합니다.

생활교육

건강채움 : 비대면 돌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영양교육 : 만성질환 ‘당뇨병’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개선하고 실천하는 「‘당’과의 이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 일상탈출! 효+ 행복나들이 2 표창 3 어르신 밀반찬지원



④ 아이들을 만난 **홀씨들**

키다리꿈지역아동센터 & 신나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수원의 화서동과 세류동 지역 내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에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초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체험학습, 견학, 캠프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서초구협회장에 치어리딩대회 은상 2 노리노리되미 프로그램 3 여름방학캠프 4 정개구리연못 텃밭만들기 체험

지역아동센터

1인 1악기 지원 우쿨렐레 오카리나

서수원로터리클럽에서 악기를 지원받았습니다.

행복나눔의밤을 축하합니다

행복나눔의밤을 축하해주러 오프닝 기타연주를 하는 예본이의 모습~

공부방 내 캠프 (화성행궁과 센터에서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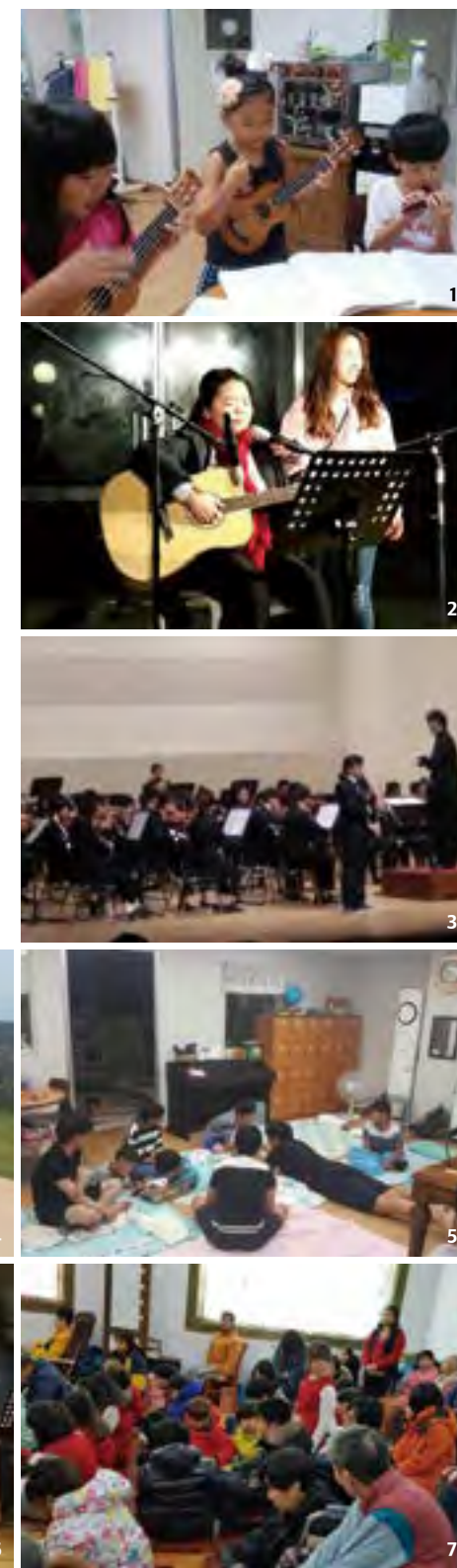
신나는공부방, 키다리꿈과 함께 공부방 연합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노리노리되미' 사또님과 무사와 함께 찰칵!!

꿈쟁이 오케스트라 협연

졸업생 하연이의 솔로 연주! '꿈은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봉담 섬김의 집 양로원 방문

어르신들을 알뜰하게 챙기던 우리 친구들 너무 대견합니다~



1인 1악기지원 우쿨렐레, 오카리나 2 행복나눔의밤 3 박하연 공연 4,5 공부방내 캠프 6 행복나눔의밤 7 봉담 섬김의 집 양로원 방문

장안구민회관 작은 음악회

어렵게 배웠지만 이렇게 무대에서 연주하니까 배우길 정말 잘했어요~~

서초구협회장배 치어리딩 은상

글로벌 청소년 다문화센터에서 특기 적성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배워 봤습니다.

신나는 여름캠프

신나는공부방과 키다리꿈이 함께 요트를 타러 갔습니다~
신나는 여름캠프입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친구들과 찜질방에서 자는 거요!”
와!! 신난다! 재미난다!

삼성과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

경제골든벨 수원지역 예선 골든벨은 못 올렸지만, 응원은 최고였답니다.



1 장안구민회관 작은음악회 2 서초구협회장배 치어리딩 은상 3,4 공평향 연합캠프 5 도전 골든벨



1 버룩시장 2 '온다' 부모교육
3 보아스그림그리기대회 은상
4 수원외고 영어캠프 5 수요문화제

경제놀이터 아니시장 (버룩시장)

공부방에서 칭찬스티커로 받은 '야니'로 먹거리도 사고 물건도 구입하는 신나는 날입니다. 경매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그림그리기대회 은상을 탔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아스그림그리기 대회에서 나의 꿈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 원희의 꿈은 '아나운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원희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온다' 부모교육

우리 아빠,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어린이 생태미술관 '풀잎'

어린이 생태미술관 풀잎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원외고 영어마을

멘토가 되어줄 언니들과 함께 고민 상담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를 위한 수원수요문화제

어르신들의 아픔을 저희도 기억할게요.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에버랜드겨울나들이

놀이공원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신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공부~~~습습! 숙제~~ 습습!

2023년 여름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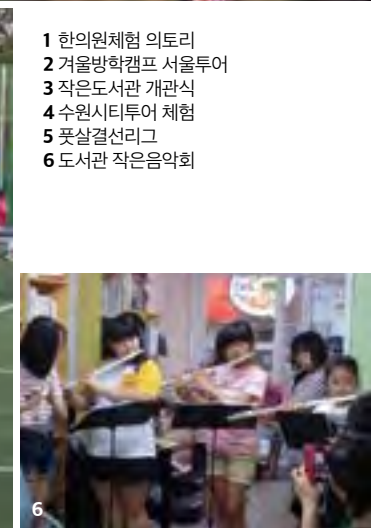
태풍이 왔어요~ 우린 캠프에 왔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놀이~
“애들아!~ 물속으로 들어와 물속이
더 따뜻해~”

2023년 노리노리 되미되미 프로그램

옛 선조들의 지혜를 알아보며~
우리의 자랑인 문화유산 화홍문에서
찰각!!



- 1 여름캠프
- 2 아동풍물패 길놀이 체험
- 3 오카리나 음악발표회
- 4 에버랜드 겨울나들이
- 5 행복공감 청소년캠프
- 6 겨울방학캠프



- 1 한의원체험 의토리
- 2 겨울방학캠프 서울투어
- 3 작은도서관 개관식
- 4 수원시티투어 체험
- 5 풋살결선리그
- 6 도서관 작은음악회

Ω



현재의 홀씨들이 그리는 우리의 고민과 바람

수원나눔의집 활동은 크게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 영역입니다.
총 70여 명의 실무자가 각각 맡은 바 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임이 수원나눔의집과 잘 매칭되어 좀 더 따뜻한 홀씨로,
좀 더 지역을 살피는 홀씨로 퍼져갈 수 있기를 모든 실무자는 소망합니다.



사진촬영 : 성유숙(프리랜서 사진작가)
1996년부터 나눔의집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옴. 현재 더메디컬 사진기자

☞ **키다리꿈 임혜경** — 수원나눔의집의 25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나눔의집이 계속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앞으로 50주년으로 갑니다. 쪽~~이요.

☞ **키다리꿈 이소민** — 지역아동센터의 버팀목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지켜주신 수원나눔의집 25주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 **신나는공부방 조세리** — 수원나눔의집에 다닌 지도 8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25주년 행사를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나눔의집에서 많은 것들을 함께해오고 활동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번 25주년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 정말 뜻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눔의집 이름답게 나눔을 실천하고 배우는 삶을 함께하였으면 합니다.

☞ **신나는공부방 윤효선** — 수원나눔의집의 25주년을 축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원나눔의집과 함께한 지 1년 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나눔의집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25주년이 더욱 뜻깊네요. 오랫동안 공부방의 아이들도 나눔의집이라는 울타리 아래에서 쑥쑥 커왔고, 어르신들도 편안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원나눔의집이 더욱 많은 분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인맞춤돌봄 정희승** — 와우! 25주년 축하축하!!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한 복지 활동을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수원나눔의집이 되길 바랍니다~

☞ **노인맞춤돌봄 이나연** — 25주년이 되는 해에 수원나눔의집에서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선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 실무자

☞ **노인맞춤돌봄 조수아** — 수원나눔의집 25주년 축하합니다.

☞ **노인맞춤돌봄 이주연** — 수원나눔의집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벗으로 함께 살아가는 수원나눔의집 응원합니다!!

☞ **장기요양 이상희** — 우선 수원나눔의집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면서 이 글을 쓰는 제가 수원나눔의집 소속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25년 동안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늘 낮은 곳에서 나눔 활동했던 나눔의집은 조금은 소박해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모두 첫 마음으로 자기 분야의 활동을 지속해가길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속성 속에 수원나눔의집은 옛날 시골 초가지붕의 하얀 박이 가을 달빛 속에서 여물어 가듯 멋지고 나눔이 빛나는 곳이 되리라 확신해봅니다. 조금은 서툰고 모자란 우리를 선한 영향력으로 수년 동안 꾸준히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정일용 신부님께도 더불어 감사를 표합니다. 아자! 아자! 수원나눔의집이여 영원하여라. 파이팅^^

☞ **장기요양 김수경** — 수원나눔의집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원에서의 25년의 세월 동안 민들레 홀씨의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그 이상의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곳으로 남길 바랍니다. 저도 그 나눔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장기요양 실무자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 **재가노인 이정희** — 민들레 홀씨가 수원나눔의집에 자리 잡은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삶의 공동체로 지냈던 지난날의 사진과 이야기 속에서 그때의 수원나눔의집을 상상해 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울고 웃었으리라.... 열 사람이 한 발자국을 나갔으리라.... 지금은 사업단 형식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고 지역 활동과 연대의 힘으로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름 없는 이들이 환대받는 수원나눔의집 이기를 바랍니다.

☞ **재가노인 나문주** — 입사 6개월 차에 맞이한 수원나눔의집 25주년. 사람의 나이로 본다면 가장 빛나는 나이가 아닐까.... 지역 안에서의 한결같은 나눔 활동을, 사회적 연대를 계속 이어 나아갈 수 있는 구력 있는 수원나눔의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 25주년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 **재가노인 추명인** — 수원나눔의집 25주년을 축하합니다. 힘든 시간을 거치며 곳곳이 자란 멋진 소나무처럼 늘 좋은 영향력을 지역에 펼치는 수원나눔의집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 **재가노인 조미숙** —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김의 시작이 벌써 25주년이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함께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하시고 후원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다가가는 수원나눔의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가노인 실무자

내일의 훌씨들

수원나눔의집의 약속·가치

나눔의집 운동, 1986년 9월 상계동 나눔의집이 세워진 후 3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눔의집은 그동안 성공회는 물론 한국교회의 사회선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새로운 교회의 모델로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작고 소박했지만 자기 소명에 뜨거웠던 시기였기에 나눔의집 활동을 하나의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수원나눔의집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눔의집은 초창기에 비해 벽찰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 양적 성장 뒤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활동의 원심력은 강해졌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구심점이 약해질 때, 대부분은 조직의 정체성 및 공동체성이 떨어지지요.

수원나눔의집 25주년 인터뷰 때 이한오 신부님과 나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수원나눔의집 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전체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업을 줄이고, 나눔의집이 마땅히 해야 하는 고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래야 나눔의집이 50년이 되었을 때도, 기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눔의집이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먼저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해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그 마지막 자존심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고민 가운데 나눔의집협의회에서는 올해 2023년 나눔의집 가족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기조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눔의집이 지켜야 할 활동의 주요 과제들을 몇 가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이후, 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나눔의집 운동

(활동 기조문)

- 1 나눔의집은 지난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난한 이들과 동행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기후 생태 위기와 코로나 19 재난, 도시와 복지 환경의 변화 등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기존의 나눔의집 운동에 대한 성과와 한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 2 나눔의집은 소외를 넘어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람 중심의 연결망을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눔의집은 나눔의집 영성에 근거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주체적 관계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이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돌봄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 3 나눔의집은 각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한 사람들과 동행해 왔습니다. 도시와 복지 환경이 점차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빈틈과 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눔의집은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공간으로 존재해야 하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의 이웃을 섬기며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 4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되어 성장 제일주의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일상으로 인해 가난한 이들의 지속 가능한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기후생태위기와 사회 양극화 또한 매우 심화되었고, 코로나 19를 겪은 한국 사회에서는 ‘가난이 재난’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나눔의집은 모두에게 지속할 수 있는 생태적 삶, 대립과 경쟁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 5 나눔의집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성찰과 변화를 가장 중요한 조직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눔의집은 활동가와 주민이 개인의 성찰과 함께 인격적 소통을 상호 경험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을 만듭니다. 이처럼 개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혁신하는 동시에, 개인 안에만 갇히는 이기적 삶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돌봄을 일구어 갑니다.
- 6 나눔의집은 주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활동가를 키워내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와 같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임과 교육에 힘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겸손과 협력, 환대와 연대, 정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익히며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시켜 갑니다.

이러한 6가지 원칙을 늘 견지하면서 각 나눔의집은 서로의 현장에 맞는 실천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 수원나눔의집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연대',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 대립과 경쟁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 '성찰과 변화, 기도와 실천의 일치', '주민활동가 양성'이라는 기조가 수원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나눔의집이 끝까지 버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의 활동! 무엇보다 먼저 수원나눔의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수원나눔의집이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좋은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도 연차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가정상황(자녀 양육 등)이나 개인의 건강 등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에너지가 퍼질 수 있으니까요.
한편 좀 지나쳐서 그것을 이용하는 실무자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 양만호 신부

우리가 일하는 수원나눔의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내 활동에 자부심이 일지 않고 불편하며 내 옷이 아니라는 느낌으로 일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불행할 것입니다.
먼저 수원나눔의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활동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의집'이라는 말만 들어도 힘겹고 가슴시린 이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삶이 아프고 희망이 간절한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듬는 바로 '나, 우리도' 사람,
우리를 외면하고 아프게 하지만 늘 옆에 있는 사람,
상처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사람.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그 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손, 놓지 않겠습니다.”

4 번째

원주네

김진진 대표

김진숙 선생님

박옥순 선생님

25주년을 축하해준 많은 훌씨들

성준·영천·성원이네

김민주 대리

투명하고 기이하게
연결된 사람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맑고 투명한 줄이지만
그럼에도 가슴 시린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미처럼 달려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묘한 진동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울리는 떨림이 있기에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투명한 거미줄로 만난 첫 번째 가족, 커민스필터 김민주 대리

INTERVIEW



커민스필터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2013년부터 수원나눔의집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인연의 소중함을 지키며,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터뷰로 만난 김민주 대리님은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이신만큼 어르신들을 대할때도 스스로없이 활발함 가득한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을 지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 커민스필터의 핵심가치

커민스필터는 어떤 곳인가요?

2013년부터 수원나눔의집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커민스필터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는 수원과 화성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약 1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주로 상용차(트럭/버스 등) 및 산업용 장비(굴착기, 지게차 등) 필터를 제조합니다. 한국의 주요 고객사는 HDI(현대인프라코어), HCE(현대건설기계), HMC(현대자동차) 등입니다.

김민주 대리님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2021년에 입사하여 수원 사업장에서 공급업체 관리 및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지사 지역 사회공헌활동 운영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커민스필터와 수원나눔의집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을까요?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보육원 봉사, 소규모

환경미화 활동 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수원공장 설립으로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다수의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프로그램을 모색하던 중 2013년 수원나눔의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수원나눔의집 활동의 가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선한 기여를 생각하는 커민스필터와의 가치가 부합하면서 현재 2023년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민스필터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커민스 그룹은 1919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18개 국가에 500여 개의 사업장이 있고, 총 57,000여 명의 직원을 둔 규모가 큰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그 이상의 더 높은 목표 가치가 있어야 수많은 구성원이 오랫동안 애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커민스 그룹은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Making people's lives better by powering a more prosperous world)”는 사명(Mission) 아래 핵심 정책(Core policy)들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EEEEC(Every Employee Every Community) 즉,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모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원금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가진 능력을 지역사회 참여로 끌어내는 것이지요.

직원 관점에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매력은 무엇일까요?

바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나눔이나 봉사활동에 대해 생각을 할 기회가 어렵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 이후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커민스필터에 입사하면서 작년부터 EEEEC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활동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추석선물꾸러미 포장이었었는데, 그때 동료들과 함께 몸을 쓰는 봉사활동을 통해 색다른 경험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감도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졌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봉사활동이, 회사 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해주고, 참여를 독려하고,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커민스필터의 가치와

회사를 알릴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도 보람됩니다.

앞으로 커민스필터는 수원나눔의집과 어떠한 나눔활동을 하고 싶으실까요?

지역사회안에서 커민스의 배려와 포용의 핵심가치가 나눔활동으로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19 동안 멈추었던 대면 봉사활동이 다시 수원나눔의집과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직접 만나고 커민스필터 직원들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25년의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나눔의집에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수원나눔의집의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소외된 이웃에 꾸준히 나눔의 손길을 건네시며 어려움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커민스필터의 참여가 더욱 의미 있는 가치를 지역사회 안에서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수원나눔의집의 나눔의 손길이 앞으로 더 많은 분께 닿아 계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투명한 거미줄로 만난 두 번째 가족, 화홍리더스 김신진 대표

INTERVIEW

현재 화홍리더스(기업연합봉사단체) 대표로 계시며,
2018년부터 수원나눔의집과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항상 “어려워도 꿈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키다리꿈 아이들에게 따뜻한 결연후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화홍리더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화홍리더스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꿉니다.
특히 어린 세대에게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희망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작지만 따뜻한 나눔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원나눔의집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수원나눔의집과의 첫 인연은 2018년, 수원나눔의집에서 근무하던 분이
우리 회사로 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눔의집 키다리꿈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나눔의집과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눔의집 어르신들도
만나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수원나눔의집 활동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화홍리더스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그리고 또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세대처럼 어렵게 살고 힘들게 공부하던 때와는 달리 요즘에는
마음만 먹는다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빈부 격차가 커지며 그 안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아이들도 많지요.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것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인성건설에서는 현재 도움이 필요한
학생 세 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도움을 받는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수원나눔의집과의 나눔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보고 싶으신지요?

저희가 국수 봉사나 떡국 봉사 등 매년 나눔 활동을 해왔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동안 쉬었던 거 같습니다.
이제 겨우 대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올해 2월 22일,
어르신 음식 대접과 아동 장학금 전달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은 아동들이나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식사 대접 봉사보다
장학금 전달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 저희도 기관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원받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 같은 나눔의 활동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주년을 맞이하는 수원나눔의집에 화이팅 메시지를 전해주셔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25년의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지역에서 25년 동안 나눔 활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눔의집에서 헌신한 모든 분을 응원하며 앞으로 수원나눔의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뚝 솟기를 기원합니다.

화홍리더스의 김신진 대표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뿌린 나눔의 씨앗들이 건강하게 열매 맺어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를
저희 수원나눔의집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투명한 거미줄로 만난 세 번째 가족,

신나는공부방 성준·성찬·성원이네

INTERVIEW



신나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이하 신나는공부방)에서 초대하는 인터뷰 손님은
성준·성찬·성원이의 3형제의 어머니입니다.

첫째인 성준이는 2015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장장 8년 동안 함께 했으며,
둘째 성찬이와 성원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벌써 6학년, 4학년이 되었네요.
바로 이 삼형제의 어머니이신 윤혜수님을 모십니다.



먼저 수원나눔의집 신나는공부방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세 아이 중 첫째인 성준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시켰어요. 아이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는 데 백지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의 눈높이보다 저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위주의 학원 같은 곳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는 공부방을 보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신나는공부방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어요.

다자녀 가정인데요? 요즘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과 자녀를 계획하는 부부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엄마아빠가 얼마나 잘 지내고 행복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디서든
친구들과 활발하게 지내고, 선생님들과 주위 어른들의 관계에서도 예의를
지키면서 잘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역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싸우거나 큰 소리치지 않고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것
만으로도 아이들은 그 영향을 받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수원나눔의집 신나는공부방이란 성준, 성찬, 성원 가족에게 어떤 곳일까요?

가족의 돌봄에서 부족한 조각을 채워주는 퍼즐 판 같은 곳이에요.
워킹맘으로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써주니 제가 마음 쓰기 힘든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나는공부방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선생님들이 학습적인 면을 신경써주시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면이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 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신나는공부방의 배려와 애정 덕에 저희 부모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좀 더 책임있는 부모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윤혜수 어머니는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공부방이 잘 채워준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일과 이외에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학습과
사회를 알아가는 다양한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신나는공부방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신나는공부방도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 커가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가진 빈자리를 세심하게 찾고 살피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투명한 거미줄로 만난 네 번째 가족, 키다리꿈지역아동센터 원주네

INTERVIEW



“원주아~ 오늘 엄마랑 인터뷰하는 날인데 같이 갈까?”

“저두요?”

원주는 밝은 미소가 너무 귀엽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나눔의집으로 가는 차 안은 오랜 시간 키다리꿈과 함께해 온 추억을 다시 떠올려 보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곳 키다리꿈지역아동센터(이하 키다리꿈)에서 15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인연을 맺고 있는 우리 키다리꿈의 가족입니다. 한두 명의 자녀를 키우기도 어려운 요즘, 다섯 명의 자녀를 훌륭히 키워내셨습니다. 큰 아들 종준이로부터 축구 특기생인 종언이가 졸업하고, 큰 딸 원실이는 7살부터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센터활동에 적극적이던 모범생 원희는 벌써 중학교 3학년, 지금은 막내 원주가 5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적극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키다리꿈지역아동센터와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

먼저 남편과의 인연, 그리고 저희 키다리꿈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원주 아빠와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원주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수원 화서동에 자리를 잡고, 우연한 기회에 공부방을 알게 되었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우 자녀들과 같이 센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아주 오래전의 일이네요!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아이들이 어느덧 이렇게 성장했어요. 지금은 셋째 아이까지는 성장하여 사회인이 되었고 원희와 원주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자녀 출산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과 자녀를 계획하는 부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자녀를 계획하는 많은 부부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밝게 크는 다섯 아이들을 보면서 다자녀 어떻게 키우시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획을 하고 출산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자녀를 2명이나 3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한 명씩 주셨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태어나 다섯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나눔의집이 올해 25주년이 되었는데 응원의 메세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의집이 25주년이나 되었는지는 몰랐네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이 공부방 가기 싫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키다리꿈이 늘 옆에 있어 아이들을 편안히 보낼 수 있었고 아이들도 즐겁게 공부방을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 막내 원주를 임신하고 참여했던 공부방 부모 모임에서 ‘자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날 모인 모든 부모님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아이들에게 잘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키다리꿈이 훗날 아이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든 보금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한 거미줄로 만난 다섯 번째 가족, 박옥순 선생님

INTERVIEW



박옥순 선생님은 200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재가관리사로,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나눔의집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어르신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셨던 박옥순 선생님! 이제는 빠른 듯,
느린 듯 어르신들 곁에서 함께 발맞추며 그분들을 더욱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원나눔의집,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곳”

“봄 햇살과 함께 연두빛 새싹들이 뽑내기 시작하는
2007년 4월 제 나이 50살에 수원나눔의집을 만났습니다.
벌써 16년이 되었네요.
가정봉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집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었지요. 일반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그 당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신부님이 계시고
그곳이 수원나눔의집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잘 못하는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 공부를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수첩에 어르신과 음식에 관련된 메모를 했는데,
지금이야 핸드폰이 모든 정보를 주지만 그 당시는 일일이 수기로
써야했습니다. 지금도 제 수첩에 적힌 어르신 한분 한분의 이야기와
조리메뉴를 다시 보면 그날의 설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매주 수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힘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국, 반찬을 조리하고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날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르신들께 건강한 음식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 같아요.
수원나눔의집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동네잔치를 했었습니다.
추석에는 명절음식 내음이 동넛길을 메웠고
김장을 할 때는 ‘아휴~’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럼에도 후원자분들과 동네 주민들이 함께했던
손길 하나하나에 힘이 났었지요.

모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내가 죽어서도 너 잘되길 기도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는 참 감사했습니다.
저를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집에 있는 것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원나눔의집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곳인 거 같아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 실무자선생님들, 후원자분들, 동네주민들까지...
‘어쩌면 이곳이 세류동이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원나눔의집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이곳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소녀 같은 박옥순 선생님!
앞으로도 선생님이 준비한 맛난 음식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 더 건강하셔야 해요.

투명한 거미줄로 만난 여섯 번째 가족, 김진숙 선생님

INTERVIEW



김진숙 선생님은 2012년 7월에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수원재가) 가정봉사원으로 나눔의집을 만나서 2020년 12월 선생님의 정년으로 어르신들과 아쉬운 인사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어르신들을 ‘꽃같이 어여쁜신 어르신’이라 부르던 분이셨어요.
어르신들은 김진숙 선생님과 얘기 나누는 시간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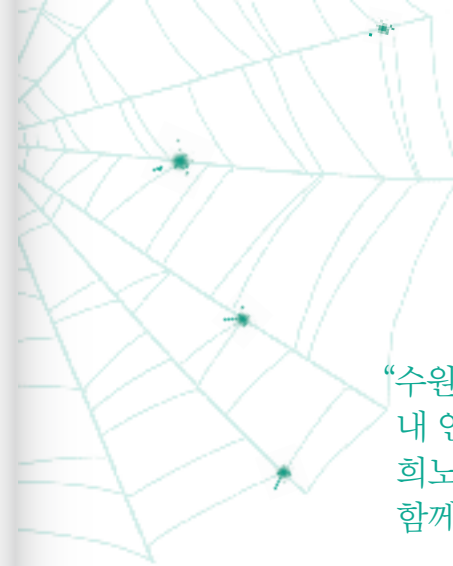
“저희 아버지를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전화 드립니다.”

어느 날, 어르신 번호로 걸려 온 아드님과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세먼지 유입이 위험하다며 항상 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담배를 태우시던.. 매주 부탁하셨던 복권이 당첨되면 비싼 갈비를 사주시겠다는 꾀짜 어르신이었지요. 다시 볼 수 없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90세가 넘는 다른 한 어르신은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매주 처음 하시는 것처럼 다시 들려주십니다. 가족들의 무관심과 열악한 환경, 힘겹게 삶의 끈을 잡고 계시는 어르신께서 제게 ‘살아생전 만나는 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라며 ‘나 죽을 때까지 있어줘!’ 하실 때에는 많은 감정들이 교차됩니다.

이 어르신이 가장 힘이 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이 어르신의 깊은 주름들에 편안한 미소를 짓게 해드릴 순 없을까?

가족들과의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반찬통 몇 개를 꺼내 담아봅니다.
끼니가 힘든 어르신들이 이것만이라도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이 반찬통을 비롯하여 어르신이 부탁하신 생필품, 약품, 병원 서류, LH 임대서류 등이 제가 항상 메고 다니는 가방에 들어있습니다.



“수원나눔의집,
내 인생의
희노애락과 성숙이
함께 한 곳”



누군가 그 큰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보십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 주는 선임이자 동료 선생님이 있었기에 정성 다해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나눔의집에서 어르신들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구같이 정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희노애락과 성숙한 깨달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과 좋은 추억으로 나눔의집과 퇴직 인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늙어가면서 제일 서러운 것은 세상의 모든 이들로부터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라지요.

“수원나눔의집이 지금처럼 병들고 아픈 곳에
먼저 손을 내밀기를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수원나눔의집도 김진숙 선생님을 기억하며 응원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진심은 결국 돌아 돌아서 진숙선생님에게 쌓이고 선생님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해줄 것이라 믿어요. 다시 만날 때 까지 힘내세요!

25주년을 축하해준 많은 홀씨들

“우리는 투쟁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수원나눔의집은 고통과 빈곤, 소외가
개인의 무능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죄의 결과라고 믿으며
이 같은 현실과 싸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해준 이들에게
“수원나눔의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Q. 수원나눔의집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건 왜요??



홀씨들 축하메시지

포에버~~♡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 소외된 이웃을
늘 섬겨온 수원나눔의집~~~
그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참된
선교를 수행하시는 정신부님과 신도들,
실무자들께 진심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원나눔의집 포에버~~~♡
- 김진세 신부(성공회 세마대교회)

내미는 손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의
손길들이 있는 곳이어서
- 김홍일 신부(성공회 수원교회)

헌신과 배려

나눔의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25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봉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눔의집에서 헌신과 봉사하시는 많은
분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나눔집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힘드시겠지만,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수 신자회장(성공회 수원교회)

친구

내가 수원에 와서 처음으로 왔을 때
친구와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
- 허윤범(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그루터기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음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곳
- 박영철(수원KYC대표)

토끼풀

네 잎 클로버 같은 희망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다.
- 김형용(신한은행)

놀이터

수원나눔의집에 있을 때,
마을 노래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실무자 선생님들과 노래자랑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오랜 준비를 했었죠.
쉬는 날도 나와서 전단을 돌리고 일을
마치면 맥주도 한잔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자랑을 지금의 수원나눔의집 길
건너에 있는 놀이터에서 했었는데,
많은 주민이 모였습니다. 마을 잔치가
된 기분이었죠. 왁자지껄한 행사에 민원도
많이 들어가 경찰차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즐거운 행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나눔의집의 모습이었죠.
25주년 나눔의집을 축하드립니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는
곳으로 계속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 **홍정수**(마음챙김연구소 소장)

고향 집과 밭

저에게 20여 년간 따스함과 위로가
되어주었던 많은 분들과의 추억,
소외받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의 가족이
되어주신 사랑의 공동체,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 등의 사회적 문제에 함께
하던 실천의 공동체인 나눔의집
응원합니다.
- **유주호**(수원4.16연대)

우리(We)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늘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 **민영주**(성공회 의정부교회)

정자나무

마을 입구나 한쪽에 자리해서 마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 서 있는
정자나무. 그들도 만들어 주고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도 되어주며,
마을 주민들의 시시콜콜 수다 떠는 곳도
되어주는 정자나무. 때로는 마을의
수호자로, 때로는 마을의 상징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언제나 서 있는
정자나무 수원나눔의집.
- **이대성 신부**(성공회 서울교구 교무국장)

어느덧 25년!

수원교회 보좌로 있으면서 나눔의집
설립에 일조했는데 벌써 25년이 흘렀군요.
수원나눔의집을 위해 두 손 모읍니다.
- **김장환 신부**(성공회대학교로교회)

25주년 축하메시지

수원나눔의집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나눔의집 여러분들로 인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활동 속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 **이종장**(수원나눔교회 신자회장)

지역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25년 지기
벗 수원나눔의집 ♥ 언제나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 **고윤정**(성공회파주교회)

수원나눔의집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원나눔의집은 수원을 돌보이게 만드는 참으로 훌륭한
기관입니다 서로 비를 함께 맞아 주고 서로 나눔으로써
미래에 희망을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수원나눔의집이 수원에 살고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재정**(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회장)

지금의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의 활동이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원나눔의집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임희봉**(수원나눔교회 사제회장)

25주년 축하메시지

소외되고 힘들고 외로운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보듬어준 세월이 25년! 이라는 숫자를 만듬에 축하드립니다.

많은 일과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하여 노력과 헌신으로 섬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수원나눔의집을 여태껏 섬기고 이끌어 오신 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25주년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황응식(성공회수원교회 사제회장)

그늘진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회의 성원으로 환대하는 역할을
해오신 수원나눔의집의 25년 걸음,
앞으로 나아갈 걸음에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 너나드리 성연

수원나눔의집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정겨운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나눔의 집,
수원나눔의 집이 있어 행복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 전민호 신부(성공회 초지교회)

교회의 흥씨 성공회나눔의집



성공회 나눔의집 영상

- ①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몸으로 사는 부활의 증인이고자 한다.
- ② 우리는 기도(묵상)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 ③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 ④ 우리는 공동체로 살고자 한다.
- ⑤ 우리는 투쟁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 ⑥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자 한다.

성공회 선교정신 (The Five Marks of Mission)

- 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② 새 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합니다.
- ③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 ④ 불의한 사회를 변혁하고 모든 폭력에 도전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합니다.
- ⑤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지구 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합니다.

성공회 선교정신은 1984년 전 세계 성공회 관구장들의 회의인 세계성공회관구장협의회에서 통과된 문서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대해 전 세계 성공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적인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 5개의 선교정신 중 4번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폭력, 갈등, 대립, 전쟁, 빈부격차, 불평등, 불공정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성공회가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는 문장으로 2012년에 특별히 새로이 추가되었다.



함께 나누는 나눔의 홀씨들을 기다립니다.

수원나눔의집 후원 계좌 : 국민은행 257601-04-198458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25주년 기록집

내 마음 홀씨되어

펴낸날 2023년 10월 27일

발행인 정일용

디자인 디자인윤디

펴낸곳 수원나눔의집

주소_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42번길 6

전화_ 031)224-7942 홈페이지_ www.swnanum.org

이 기록집은 수원나눔의집 25주년 기념백서로 제작되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떨리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란 사람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린 것은
홀로였던 당신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을 잃어버린 사람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당신의 정처 없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음은
거친 나무 위에 달린 당신 때문이 아니라
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입니다.

정갈한 미사는
당신을 향한 그리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들
날마다 무릎을 꿇어
눈물은 샘솟듯 영롱합니다.



이 시를 쓰며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집이 늘 이러기를 갈망했어요.
첫 번째 시집 '바다의 푸른 눈동자'에 실린 줄시입니다.

김대술 신부

25th

이름없는 사람들이 환대 받는 곳,
수원나눔의집